

&lt;표 74&gt; 제6차 국민투표 상황

구분	투표 인수 (부재자수)	투표수 (부재자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 표 율 (%)	유효 투표 율 (%)	찬 성 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98.5	93.1
경북	1,882,286	1,728,173	1,606,634	96,308	1,702,942	25,231	154,113	91.8	98.5	93.0
울진군	54,956	50,341	47,354	2,312	49,666	675	4,615	91.6	98.7	94.1
울진	9,452	9,040	8,559	356	8,915	125	412	95.6	98.6	94.7
평해	4,630	4,277	4,042	185	4,227	50	353	92.4	98.8	94.5
북면	7,399	6,693	6,299	305	6,604	89	706	90.5	98.7	94.1
서면	1,966	1,784	1,657	97	1,754	30	182	90.7	98.3	92.9
근남	3,685	3,461	3,252	162	3,414	47	224	93.9	98.6	94.0
원남	4,062	3,769	3,536	168	3,704	65	2293	92.8	98.3	93.8
기성	4,630	4,302	4,031	215	4,246	56	328	92.9	98.7	93.7
온정	3,493	3,175	2,936	186	3,122	53	318	90.9	98.3	92.5
죽변	7,427	6,579	6,176	313	6,489	90	848	88.6	98.6	93.9
후포	8,212	7,261	6,866	325	7,191	70	951	88.4	99.0	94.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 제6절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제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신헌법 부칙에 따라서 헌법 시행일 40일 이전까지 실시되는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었다. 1987년 6·29선언과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안 확정 후 선거전은 본격화되었다. 민주정의당에서는 노태우 대표위원이 6·10 전당대회 이후부터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였고, 통일민주당에서는 11월 9일 임시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평화민주당은 11월 12일에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에서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오랜 야인 생활에서 9월 28일 정계 복귀 선언을 한 김종필은 10월 30일에 열린 신민주공화당의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백기완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며 중도 사퇴하였다.

선거전은 후보자의 직접 유세와 찬조 연설자에 의한 유세 및 TV를 통한 정견발표 등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2·12사태, 5·17사태, 5·공 비리 등이 또한 주요 이슈이었다. 그러나 실

제로는 격심한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 대구·경북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전남과 전북 광주에서는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득표하였다.

이 대통령선거의 전국 및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결과는 <표 75>, <표76>과 같다.

<표 75>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구분	선거인 수 (부재자)	투표자 수(부재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25,873,624	22,603,411	463,008	23,066,419	2,807,205	89.2	97.8
경북	1,868,025	1,669,019	40,225	1,709,244	168,781	91.0	97.6
울진군	54,413	46,496	1,170	47,666	6,747	87.6	97.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76>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결과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주의 통일한국당	계
	노태우 (盧泰愚)	김영삼 (金泳三)	김대중 (金大中)	김종필 (金鍾泌)	신정일 (申正一)	
전국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46,650	22,603,411
강원	1,108,035	470,189	39,756	43,227	7,812	1,669,019
울진군	32,436	11,416	1,415	1,088	141	46,49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유신헌법 아래 유지되어온 1구 2인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며, 전국 224개의 지역선거구와 75명의 전국 선거구를 합한 의원 정수는 229명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이었으며,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선거였다.

극심한 혼란과 지역감정 속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 광주와 전남·전북지역은 평민당이 전체 37석 중 36석을 차지하였다[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한겨레민주당이 1석]. 부산은 민주당이 15석 중 14석[민정당 1석], 대구는 민정당이 8석 전부를 차지하였으며, 충남은 18석 중 공화당이 13석을 획득하여 지역적 분할 구도가 극심하였다.

이 선거의 투표 상황과 전국적인 후보자 수와 당선자의 상황은 다음 <표 77>과 같다.

&lt;표 77&gt;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당선자와 득표율

정당 단체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지역구	전국구	계	지역구	전국구	계		
민주정의당	224	62	286	87	38	125	6,675,494	34.0
평화민주당	168	38	206	54	16	70	3,783,279	19.3
통일민주당	202	40	242	46	13	59	4,680,175	23.8
신민주공화당	181	25	206	27	8	35	3,062,506	15.6
기타정당	160	8	168	1	-	1	507,425	2.5
무소속	111	-	111	9	-	9	933,161	4.8
계	1,046	173	1,219	224	75	299	19,642,040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진군은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다. 본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김중권, 통일민주당의 황지성, 평화민주당의 장소택, 신민주공화당의 최순열, 무소속 이동일 후보 등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표 78> 및 <표 79>와 같다.

&lt;표 78&gt; 제13대 국회의원 경북 울진선거구 선거 결과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민주 정의당	김중권 (金重權)	39.11.25	울진읍 평해읍 평해리 930-2	정치인	서울대 사법대학원 졸	서울고등법원판사 민주정의당공천심사위원	23,484	당선
통일 민주당	황지성 (黃志聲)	39.01.29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474	정치인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울진청년회의소회장역임 백암관광호텔대표회장	8,336	
평화 민주당	장소택 (張蘇宅)	34.05.01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30-4	정치인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제7,10,11대 국회의원출마	3,370	
신민주 공화당	최순열 (崔淳烈)	39.08.11	서울 성동구 광장동 극동 APT 3-1306	정치인	서울대 정치학과 졸	민주공화당청년국장 삼익건설(주)부사장	3,755	
무소속	이동일 (李東一)	41.10.2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70-6	상업	동국대 물리학과 졸	일본대판이스톤클럽이사 일본대폰동발산업(주)사장	3,92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79&gt; 제13대 국회의원 경북 울진선거구 선거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결과

읍·면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 투표자수					계	무효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정의당	통일 민주당	평화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	무소속								
울진읍	9,173	8,559	4,723	1,167	834	1,223	545	8,492	107	574	93.7				
평해읍	4,599	3,762	2,347	937	67	88	293	3,732	30	837	81.8				
북면	6,805	5,154	2,496	1,088	725	458	325	5,092	62	1,651	75.7				
서면	1,826	1,566	1,121	171	57	78	109	1,536	60	260	85.8				
근남면	3,586	2,969	1,526	393	318	484	196	2,917	52	617	82.8				
원남면	3,831	3,274	2,134	449	168	329	149	3,229	45	557	85.5				
기성면	4,447	3,648	2,100	825	91	166	396	3,578	70	799	82.0				
온정면	3,373	2,767	1,131	1,414	26	67	104	2,742	55	576	82.9				
죽변면	6,977	5,443	2,476	859	778	530	747	5,390	53	1,534	78.0				
후포면	7,987	6,232	3,430	1,033	306	332	1,060	6,161	71	1,755	78.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본 선거에서 당선된 김중권 의원은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해재단설립배경 및 자금조성관련비리조사청문’을 하였다. 출향 인사로는 근남면 출신인 류승구 의원이 강원도 태백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12대 국회 말인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는 시·군·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도의회는 시·군·구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 3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문제를 제기하여 그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법에 규정된 구성 시한을 넘김으로써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을 어긴다는 비난이 야기되었으며, 이에 여·야는 지방자치법을 1989년 12월 30일에 개정하였다. 제8차 개정자치법은 그 부칙에서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시·도 자치구의 의회 의원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3당 통합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으로, 지방자치법의 실시

를 위한 의원 선거법 및 단체장 선거법의 개정을 미루게 되었다. 결국, 여·야는 타협을 통하여 1990년 12월 14일에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의원 선거는 1991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상반기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1991년에 접어들자, 여·야는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를 두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때, 정부와 여당에 의해 분리실시가 강행되자 야권에서는 선거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결국 야당도 참여한 가운데 분리 선거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공식적인 개입은 배제되었으나, 여·야는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에는 사전에 입후보자를 조정하였다. 지난 1961년 이후 30년 만에 부활한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는 전국의 3,562개의 선거구에서 4,304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총 10,159명으로 전국 평균 2.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법에 의하면 출마자는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장[1천 명 미만의 선거구는 30명 이상]과 함께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2회의 합동 연설회와 선전 벽보, 선거 공보, 소형 인쇄물 배부, 현수막 개시 등의 방법 이외에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였다.

3월 26일에 치러진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에는 당초 10,15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나 182명이 사퇴를 하고 2명이 사망하였으며, 12명의 후보가 등록 무효가 되어 실제 후보자는 9,963명이었다. 이 중 61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당선자를 토대로 민자당이 분석한 결과 민자당이 51.6%, 평민당이 19.4%, 민주당이 0.6%, 무소속 25.5%이었으며, 친여 인사가 절대 다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이 압승하였다.

초대 울진군 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과 동시에 의장단 구성을 마쳤는데, 1993년 4월 9일까지 제1기 의장에는 정삼엽 의원이, 부의장에는 장덕열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기 의장에는 장덕열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선이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3년 3월 9일에는 박종구 의원이 사망하여 공석이 된 죽변면 선거구에 대한 보궐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2,475표를 얻은 이성우 후보가 1,889표를 얻은 주진용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초대 울진군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임기 내 정기회 4회와 임시회 30회를 개최하여 총 260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울진군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6건의 조례와 1994년 예산안을 포함한 25건의 예산 및 결산안을 포함하여 총 35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초대 의회의 활동 중 특이한 것은 원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의회 내에 원전 관련 대책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며, 총 38회의 활동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원전 5, 6호기의 추가 건설 반대 및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 및 추가 건설 문제와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 등이 울진군의 주요 현안이므로, 지역 의원들 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울진군에서의 투표 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 <표 80>과 같다.

<표 80> 울진 군의원선거 상황

선거구명	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울진읍	1	장덕열	44.08.20	울진읍 읍내리 299-1	재제업	한양대졸	민자당울진군 지구당부위원장 강원목재대표	2,274	당선
	2	전학봉	32.12.29	울진읍 읍내리 60-8	상업	삼척공업 학교4년퇴	울진군접객업조합장 울진군정자문위원	1,978	
	3	장영오	30.02.15	울진읍 읍내리 32-6	농업	봉천 동광중졸	울진종고서무과장	1,977	
평해읍	1	이수진	39.05.07	평해읍 평해리 929-2	상업	후포고졸	평해읍제1의용소방대장 평해읍번영회장영위원	1,265	당선
	2	남용준	45.12.25	평해읍 평해리 453	농업	평해중졸	평해여자종교육성회장 울진군축협조대대의원	614	
	3	황재곤	47.01.05	평해읍 평해리 453	농업	후포고졸	평해1리새마을지도자 평해읍번영회장	970	
	4	도경호	47.07.25	평해읍 평해리 965-1	수의사	경북대졸	울진축협이사 자유총연맹울진군지부 운영위원	305	
북면	1	김영소	37.12.28	북면 부구리 167-1	상업	울진농고졸	북면사무소근무	1.182	
	2	전인식	35.02.24	북면 고목리 638	농업	동국대중퇴	울진문화원사무국장	1,790	당선
	3	장주환	27.05.08	북면 소곡리 173	농업	울진국졸	대통령선거인단선거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		사퇴 (91.3.18)
북면	4	임동술	49.05.08	북면 부구리 174-3	상업	죽변중졸	울진군개발추진위원회 운영위원	679	
서면		이규선	36.10.12	서면 삼근리 396	농업	동국대졸	평해읍장 울진종고총동창회회장	무투표	당선
근남면	1	황대운	46.09.21	근남면 수산리 537	상업	울진중졸	울진군의회의원	1,805	당선
	2	김선진	35.01.15	근남면 구산리 400	농업	노음국졸	공직경력31년5개월 원남.울진읍장5년	838	
원남면	3	윤병철	30.12.09	원남면 매화리 1165-17	농업	울진중졸	자유총연맹울진 사무국장	1,296	
	4	장성윤	34.06.25	원남면 매화리 1188-6	한약사	울진중졸	매화중고등학교 육성회장	1,418	당선
기성면	1	김선이	41.02.13	기성면 사동리 224	수산업	평해중졸	울진관광대표이사 후포수협이사(4대)	2,078	당선
	2	안용태	37.02.07	기성면 구산리 327-15	상업	침례신학대 3년퇴	울진군의회부의장	1,124	
온정면		김봉규	31.11.27	온정면 소태리 872-5	농업	평해중졸	기성농협감사 (3년)	무투표	당선

선거구명	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죽변면	1	박현술	38.10.11	죽변면 죽변리 10-58	수산업	울진농고졸	교사20년	1,593	
	2	박병식	26.05.23	죽변면 죽변리 240-6	건축업	만주대 건상선국졸	온정면산업계장 (공무원20년)	690	
	3	박종구	36.11.21	죽변면 죽변리 257-2	농업	울진농고 2년퇴	온정면청년회 총무이사	1,702	당선
후포면	1	김도학	31.10.20	후포면 후포리 342-3	수산업	춘천 농과대졸	청년회장 초대죽변면방법대장	1,820	
	2	방유복	54.07.20	후포면 후포리 581	수산업	후포고졸	대구검찰영덕지청선도위원 바르게살기울진부위원장	1,651	
	3	정삼엽	32.09.05	후포면 후포리 581-5		동아대졸	국가공무원10년, 수산업15년	1,949	당선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991년 6월 20일에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을 시, 선거구는 30만을 초과하는 20만 단위로 1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인구가 7만 미만인 경우, 2명을 정수로 하였다. 또 선거구는 시·군 자치구를 분할하여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거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구 내의 선거권자 200명 이상, 300명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제출해야 하며 7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였다.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서 각 당은 후보자 선정에서부터 선거 전략까지 담당하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호남에서, 그리고 신민당은 영남지역에서 후보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지역적 편중 현상이 현저하였다.

경상북도 도의원선거에서 울진군은 3개의 선거구로 분할되어 울진읍·북면·죽변면은 제1선거구, 서면·근남면·기성면은 제2선거구, 그리고 평해읍·온정면·후포면은 제3선거구로 획정되었다. 제2선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다르게, 무소속의 정재화 후보가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의 최병화 후보에 1,000표 이상의 차이로 압승하였다.

도의원 선거 울진군 선거 결과는 <표 81>과 같다.

&lt;표 81&gt; 경상북도의원 선거(울진선거구) 결과

선거구명	기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제1선거구	1	민자당	주기돈	35.05.25	울진읍 읍내리 518-11	주광전설 대표이사	강릉 사범졸	경상북도의회의의원 새마을운동울진군지 회장	8,159	당선
	2	신민당	권석윤	58.09.23	죽변면 죽변리 32	상업	서울 산업대출	울진군농민회장 전농경북연맹부의장	3,862	
제2선거구	1	민자당	최병화	38.12.21	기성면 기성리 307-7	현대광업 소장	후포고졸	울진청년회의소회장 역임	3,808	
	2	민중당	황윤길	61.11.22	기성면 사동리 433	농업	포항공고 2년퇴	경상북도의회의원 농촌지도자울진군 연합회장	967	
	3	무소속	정재화	33.12.20	원남면 기양리 1022	농업	후포고졸	민중당울진군지구당 부위원장	4,862	당선
제3선거구	1	민자당	김용수	40.04.29	후포면 후포리 607-6	(주)세웅 대표이사	경희대 법대졸	민정당울진군사무국장 울진군의료보험조합장	5,595	당선
	2	무소속	강성희	35.01.07	후포면 삼울리 63-5	양조업	동국대 법정대정 치학과졸	경상북도의회의원 대구·경북ROTC동문 회장	5,27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13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권의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3당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노태우 정권에 압박을 가했다. 1988년 5월 22일, 야권의 3김은 국회 내에 5개의 특위를 두기로 합의하고 6월 27일 특위가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회에서의 청문회 활동을 통하여 5공화국 당시 정부·여당이 저지른 과오를 질책하며 5공 비리 청산을 촉구하였다.

1989년에 접어들어 대통령 선거공약인 중간평가 문제와 국회의원 재선거, 정부와 여당에 의한 정계개편 구상과 공안정국 등이 이어져 야당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야권 공조는 무산되고 야당에 의한 정치 주도는 막을 내렸다. 1989년 중반부터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시도되었던 정계개편 논의가 1990년에 접어들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0년 1월 6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월 21일에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어 2월 9일에는 합당 대회가 열려 제6공화국 2기가 시작되었다.

3당의 합당 이후, 통일민주당에서 민자당으로의 합류를 거부한 인사와 13대 대통령 선거 전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무소속에 잔류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이후, 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합당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득실에 의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재야 세력의 일부를 받아들여 당세를 강화하였고, 평민당은 신민주연합당과 합당하여 신민당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새로이 재편된 야당은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다시 통합운동을 시도하여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로써 당 통합을 통해 민주당으로 결집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1년 3당 합당 이후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통합 야당인 민주당, 정주영의 국민당, 박찬종의 신정치개혁당 등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치러졌다. 총의석수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선거구 개편 작업으로 13개의 선거구가 증설되면서 전국구 의석수는 62석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전국구 의원 배정에 있어 제1당 우선 조항이 삭제되고 의석 비율에 따른 배정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또한, 정당 연설회가 부활하였으며 인쇄물의 흐별 투입이 허용되고 후보자 경력방송 허용과 여론조사를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회를 한층 증대시키는 반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하도록 하였다. 제14대 총선 당시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는 다음 <표 82> 및 <표 83>과 같다.

<표 8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경북·울진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전국	29,003,828	20,583,812	259,670	20,843,482	8,160,346	71.9	98.8
경북	1,921,329	1,482,661	24,075	1,506,736	414,593	78.4	98.4
울진군	48,038	37,103	486	37,589	10,449	78.2	98.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표 83>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정당별 당선자와 득표율

정당 단체	입후보자 수			당선자 수			득표수	득표율 (%)
	지역구	전국구	계	지역구	전국구	계		
민주자유당	237	54	291	116	33	149	7,923,719	38.5
민주당	225	50	275	75	22	97	6,004,577	29.2
통일국민당	189	32	221	24	7	31	3,574,419	17.4
신정당	111	14	125	1	1	1	369,044	1.8
공명민주당	12	-	12	-	-	-	21,007	0.1
민중당	52	4	56	-	-	-	319,041	1.5
무소속	226	-	226	21	21	21	2,372,005	11.5
계	1,052	154	1,206	237	62	299	20,583,812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중권, 민주당 장소택, 통일국민당 이학원, 무소속 박만순과 이동일이 출마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다음 <표 84> 및 <표 85>와 같다.

&lt;표 84&gt;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울진군 결과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민주 자유당	김중권 (金重權)	39.11.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96-38	국회의원	서울 사법대학원졸	제11.12.13대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4,285	
민주당	장소택 (張蘇宅)	34.05.01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3-2	정당인	고려대 경영대학원 1년수료	민주당 울진군 위원장 제7,10,11,13대 국회의원 출마	1,510	
통일 민주당	이학원 (李學源)	32.06.27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56	정당인	한양대 행정대학원졸	울진경찰서장 서울성동경찰서장	19,444	당선
무소속	박만순 (朴萬淳)	48.08.29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48	울진지역 빌전연구소장	서울공대 조선공학과졸	상공부 근무 대한조선학회 평의회원	797	
무소속	이동일 (李東一)	41.10.2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70-6	동원농장 대표	동국대 문리대 물리학과졸	한국중앙과학연구소 소장 추천연구원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 대표	1,06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lt;표 85&gt;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및 후보자별 결과

읍·면	선거 인수	투표자수	유효 투표자수					계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자유당	민주당	통일 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김중권 (金重權)	장소택 (張蘇宅)	이학원 (李學源)	박만순 (朴萬淳)	이동일 (李東一)								
울진읍	8,678	6,841	2,079	296	4,168	83	157	6,783	58	1,837	78.8				
평해읍	4,056	3,194	1,654	55	1,320	57	65	3,151	43	862	78.7				
북면	4,841	3,910	1,512	326	1,874	60	69	3,841	69	931	80.8				
서면	1,494	1,181	608	37	468	10	42	1,165	16	313	79.0				
근남면	3,432	2,754	1,077	141	1,436	21	53	2,728	26	678	80.2				
원남면	3,423	2,709	1,037	77	1,464	25	73	2,676	33	714	79.1				
기성면	4,053	3,189	1,062	43	1,883	39	113	3,140	49	864	78.7				

읍·면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 투표자수					계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정당 및 후보자별 득표수												
			민주 자유당	민주당	통일 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김중권 (金重權)	장소택 (張蘇宅)	이학원 (李學源)	박만순 (朴萬淳)	이동일 (李東一)								
온정면	2,929	2,379	1,060	49	1,097	48	82	2,336	43	550	61.2				
죽변면	6,030	4,546	1,521	235	2,617	44	81	4,498	48	1,484	75.4				
후포면	7,906	5,746	2,104	116	2,890	326	243	5,679	67	2,160	72.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본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중권 후보가 낙선하고 통일국민당의 이학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김중권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원전 반대 투쟁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민심이 이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인사들의 출마 포기와 이학원 후보로의 단일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학원 의원은 당선 후 민자당에 입당하였으나 재산 등록 문제로 민자당에서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다시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등의 잦은 당적 변동을 겪었다. 전반기에는 농수산위원회에, 후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당면 농정을 질의하였으며 ‘환경농업융성법안’을 발의하였다. 출향 인사로 근남면 출신의 류승규 후보가 강원도 태백시에서 민자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그 후, 민자당 강원도지부장을 지내었다. 또한, 울진읍 출신의 최두환 의원은 서울 강서을구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제7절 제6공화국(김영삼 정부)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문민 후보들 간의 대결로 치러지며 미약하나마 우리나라 현대사의 굴곡을 청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3·4공화국의 공화당과 5·6공화국의 민정당 등이 30여 년 간 이어온 집권 세력의 맥이 14대 대선으로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남으로써 선거 때마다 이어진 정통성의 시비가 사라지게 되었다.

14대 총선 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4월 7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14대 총선 낙선자 면담 시, 철저한 자유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을 강조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자유 경선이 벌어졌다. 그러나 당내 반(反)김영삼을 대표하여 경선에 출마한 이종찬 의원이 경선의 불공정성